

기독교 교육적 인재 덕목과 성령의 사역

Christian Educational Virtues of Competent Persons and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이 란 (Ran L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tract the 6 virtues of the competent persons based on the goals and the contents of Christian education and to discuss them connecting to the ministries of the Holy Spirit. For this, Cooperation Curriculum Project, and Overman and Johnson's Christian worldview education program were applied to the virtue extraction. Consequently, the six virtues were faith and sanctification, wisdom and prudence, worldview understanding and discernment, self-understanding and character, leadership and cooperation, Gospel spreading and society revolution. Discussing these 6 virtues with biblical examples on the works of the Spirit, this study tries to shed light on the Christian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ministries of the Spirit. Finally, this study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Spirit is a more fundamental and ultimate inner teacher in education and that we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Spirit's works in the formation of Christian educationally competent persons by declaring the absolute consistency of the Spirit's works with the Triune God's restoration ministries from His full authority among both persons and the world.

Key Words : Christian education, virtues of competent persons, ministries of the Holy Spirit, Triune God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 박사(Sungkyunkwan University),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iran370@hanmail.net

2017년 07월 27일 접수, 12월 15일 최종수정, 12월 20일 게재확정

1. 서론

현대 기독교교육 이론들은 교육에서 성령의 사역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서철원, 2003: 19). 그러나 1990년대 세이무어(J. L. Seymour)와 밀러(D. Miller)가 기독교교육에 두 과제-기독교적 경험과 계시의 표현을 교육의 문제로 가져오기, 교회의 실제에서 기독교교육이 일어나게 하기-를 던짐으로써 성령이 기독교교육의 핵심 주제임을 제시하였고 이로써 성령이 더 이상은 주관적 신비의 영역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내적 교사(inner teacher)로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로 이끄는 분’이다(요 14:26; 16:13). 그는 거룩하고(눅 11:13) 영원하시며(히 9:14), 무소부재하시고(시 139:7-10) 전지전능한(사 40:13) 신성과 동시에, 지성(고전 2:10-11), 감정(롬 15:30), 의지(고전 12:11) 등의 인격적 속성을 소유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다.

기독교교육의 가장 핵심적 영역은 영혼 구원과 성화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의 거듭남은 오로지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롬 8:9). 이 사실은 성령이 구원 사역에서 하는 절대적 역할을 설명해준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부으심은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에 절대적 열쇠가 된다(요일 2:27).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시며(엡 6:17), 성경 이해와 적용(고전 2:12-14), 전달(고전 2:4-5)에 깊이 관여하시므로 거룩한 삶(갈 5:16)과 효과적인 사역(롬 15:18-19)을 위한 “절대적 동력원(권능의 원천)”이다(Harvey, 2015: 27). 이 역시 성화를 위한 교육 사역에서 내적 성령 교사(inner teacher, 요일 2:27)와 전과 사역에서 주권적 성령이 역사해야 한다는 실천적 중요성을 피력해준다.

성령론을 이론적 차원에서 다루는 단행본들은 다수 출판되었다. 또 성령의 역할을 교회 내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논의하려는 시도들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보여주듯이 성령의 사역이 다만 교회의 성경 교육에만 관여한다고 보는 관점은 편협한 감이 없지 않다. 성령의 일반 사역은 종교적인 영역뿐 아니라 사회, 문화, 세계, 우주 속에서 활동하고 이것은 개인과 교회 뿐 아니라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미치기 때문이다(최윤배, 2010: 95-96).

본 연구는 성령의 특별 사역만을 강조해 온 기존 연구의 경향성을 뛰어 넘어 성령의 일반 사역에도 관심을 둔다. ‘기독교교육’의 개념을 다만 교회 교육뿐 아니라 기독교

교 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 또는 개인 간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는 행위 전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교육 원리에는 특정 교육목표와 내용, 그리고 교육의 결과로서 기대되는 인재상과 그에 따른 덕목들이 있다. 기독교교육에서도 무엇을 교육목표로 하고 교육과정 내용으로 삼느냐에 따라 그 교육활동이 키워내고자 하는 인재상이 달라질 것이다. 현대의 모든 교육이론이 그러하듯이, 본 연구 역시 많은 지식과 정보를 단순히 갖춘 인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인재를 참된 인재로 보는 관점을 취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적 인재는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요 16:13; 빌 1:19), 그리고 성령을 좇아 사는 삶(갈 5:16)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전제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하는 모든 종류의 교육 형태에서 기독교 교육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성령의 사역은 어떤 함축적 의미를 가지는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II. 선행연구 분석

성령이라는 용어 대신 영성이라는 완곡한 용어로 대체해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러한 연구의 용례는 오늘날 포스트모던 시대에 자칫 혼합주의 영성으로 기울 수 있다. 정확히 ‘여호와 하나님의 영’의 개념으로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내적 교사인 성령의 역할을 교회교육과 연결하여 논의한 학위 논문들이 있으나(김대순, 2003; 지성일, 1991) 성령의 특별사역에만 집중한 개념적 연구에 그쳤고, 국내 학술논문 중에는 기독교교육 관점에서 거룩과 세속의 이분법을 극복한 성령운동을 소개하면서 성령과 교육의 상호관계성을 전개한 소태은의 연구(2014)와 기독교 학교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논의한 Bondy의 연구(2011) 등 소수의 연구가 있다.

소태은의 연구(2014)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성령과 함께 세상을 변화하는 것을 기독교교육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잠재적 교육과정의 경이를 발생시키는 주체를 성령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성령의 경이를 체험하는 구체적 교육방법을 역설, 영적 글쓰기, 거룩한 독서 등으로 소개했다. 성령과 함께하는 기독교교육의 방법을 교회 내·외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안한 의의가 있으나 논문의 성격상 이러한 성령과 함

게하는 교육이 어떠한 목적과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실시되는가에 대한 설명은 제한적이었다. Bondy(2011)의 연구는 성령을 교육의 중심에 놓는 것을 21세기 기독교학교의 사명으로 이해하고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학습과 도덕과 영성 간의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21세기 기독교교육의 도전은 교육에 있어 성령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삶에서의 성령의 역할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의 기여점은 성령의 일반 사역에 주목하면서 교회 밖 기독교교육의 목적과 성령의 역할을 연결하여 논의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교육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이다.

Miller(1962)는 기독교교육과 성령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논의하면서 주로 성령의 조명, 설득, 재생, 변화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성령은 활동 중인 하나님으로서, 인간 교사들은 성령을 주도할 수 없고 오직 심고 물주고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교육은 신학이나 교리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에 대한 응답이라고 표현했는데(Miller, 1962: 180) 모든 지식적 학습이 그대로 믿음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현상이 그 증거이다. 성령이 기독교교육에 절대적인 주체임을 강조한 것이다.

성령의 역할에 대한 본격적 논증은 Farley의 연구(1965)에서 시작된다. 그가 상정하는 성령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다음의 진술로 요약된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way)이다. 영으로서의 하나님은 그의 사역의 한 형태(mode)이다. 하나님의 강력하고 개인적 임재의 목표는 그의 의지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영으로서 현존하며,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 은혜, 자유, 용서, 사랑의 삶이라는 내용들을 포함한다. 이를 토대로 Farley는 성령 안에서의 교육을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복음의 기이한(strange) 내용, (교회 밖) 전쟁에 대비하는 교회의 기이한 상황, 성령 안에서 삶의 기이한 자유이다. 한 마디로 성령의 교육은 양육(nurture)과 다르며 개방적이고 힘을 부여하며(empowering) 역동적이다.

Smart(1966)는 위의 Farley의 논의를 재평가하면서 교사들의 역할이 강조될수록 성령이 잊혀져가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특히 세상의 교육이나 문화에서도 교육적 개념을 차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회교육의 목표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적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회심, 성화, 구원 같은 구원의 서정에 대한 지적인 가르침이 기독교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보다 더 풍성하고 실제적인 삶의 새로운 방식에 열려져 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교육이라고 논증했다.

성령의 특별 사역을 논의하면서 일반 사역을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성령의 화해적 사역을 위해서는 성령의 지속적 소유(permanent possession)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부여되는 성령의 사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의 Miller, Farley, Smart의 연구는 교회 교육적 관점에서 성령의 개념적 역할을 설명과 논증의 방식으로 서술한 것이다. 성령의 풍성한 실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 알려진 개념으로부터 성령의 역할을 몇 가지로 요약 제시하고 그에 따라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육적 방향을 연결하여 논의했다.

이외에도 교육학자 Mason의 교육경험에서 추출된 견해에 의존해 성령의 역할을 논의한 Kaufmann의 연구(2005), 주로 Farley와 조직신학자 Barthes에 기대어 성령의 역할을 논한 Rogers의 연구(1994) 등이 있다. 이 두 연구는 주로 한두 학자의 견해를 비평하는 방식으로 성령의 교육적 역할을 논증하였는데 특히 Rogers의 연구는 교재 의존과 성령 의존을 대비시켜서 성령 중심 교육이 기독교교육의 목표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학교 교육에서도 가능함을 제안했다. 그는 과학과 기독교의 이분법을 피하고 반지성주의적 믿음이나 유물론적 과학의 배타적 선택이 아닌, 그 모든 자료와 출처가 성령 안에 존재함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령이 지배하는 교육은 교사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교육이 될 수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그밖에 서구의 말씀 지성적 신학 조류의 유입 속에서 아프리카 오순절파 신학 교육에서 성령 사역의 회복을 강조한 역사적 연구(Omenyo, 2008), 민주주의에 적합한 도덕적 덕목(virtues)과 성령의 은사를 비교하여 연결한 Jordan의 연구(2016), 예언적 시작(詩作)을 통한 성령 사역의 활성화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Guare, 2001) 등이 있다. 이러한 비교적 최근 연구들은 개념적인 논의보다 실제적인 방법론이나 사회 이슈, 역사적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탐구해 성령과 교육의 연결점을 찾았다.

요약해보면, 대부분의 성령과 교육을 연결하는 연구는 교회 교육과 (기독교)학교 교육을 각각 분리해서 논의하거나 한 가지 영역을 논의하면서 다른 영역에 대한 제언에 그치는 연구가 많다. 또한 성령에 대한 성경적, 조직신학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며 각각 연구 성격에 맞도록 몇 가지 성령의 역할을 조작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교육학적 정보를 토대로 논의한 연구가 많다. 신학적 조명보다는 교육학적 조명이 대체적이다. 나아가 대부분의 연구에 성령이 함께하는 교육에 대한 묘사나 효과는 있으나 어떤 교육 목적, 어떤 인재를 개발할 목적으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 고리가

분명하지 않다. 즉, 특정 형태의 교육에서의 구체적 목표와 이를 위한 성령의 역할을 연결시켜 논의한 연구가 부재한 형편이다. 본 연구 IV장에서 논의할 것이지만, 오늘날 교회교육과 일반 기독교교육은 매우 융합적인 형태로 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형태의 교육 목적과 내용을 하나의 비전으로 보여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동향을 따라 본 연구는 기독교교육이 추구하는 인재의 구체적 덕목들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육 목표들로부터 추출해 제시하고 이를 성령의 사역에 대한 신학적 논의와 연결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III. 성령의 특별 사역과 일반 사역

성령론은 크게 삼위일체론적 성령론과 그리스도론적 성령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윤배, 2010: 86-88). 두 성령론 모두 성령을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으로 보는 관점에는 이견이 없다. 신적 본질을 공유하면서 자존하는 위격들 간 ‘보내심’의 관계성은 위격들 간의 선-후행 관계가 아닌 본질의 일체성 개념을 내포하기 때문이다(정원래, 2015: 118). 바빙크에 따르면 하나님의 존재와 위격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삼위는 단지 나타남의 양식들이 아니라 신적 본질 안에 있는 존재의 양식들이다. 삼위는 그들의 영원한 내재적 관계에서 서로 구별된다. 즉 아버지 되심, 아들 되심, 그리고 나오심이라는 그들의 위격적 속성들에 의해서 구별된다는 말이다(Bavinck, 1992: 435).

삼위일체론적 성령론은 성령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속 제3의 위격으로 보므로 모든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강조한다. 삼위일체의 관계적 속성은 위격들 간의 일치와 다양성, 상호침투와 연합, 페리코레시스,¹⁾ 신비성 등으로 나타나며 존재가 연합을 선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관계성 속에 존재했으므로 성령은 다른 두 위격과 동시성 및 동등성을 가진다(Boff, 2011: 89-132).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일치와 사랑의 관계성은 참된 신성에서 비롯된 참된 인성, 교회 연합의 모델이 된다.

1) 페리코레시스는 상호침투(perichoresis)로 번역되는데 하나님의 위격들의 연합을 의미하고 라틴어로는 상호순환 또는 상호내재로 번역되기도 한다(김영선, 2015: 296).

황승룡(1999: 308-309)도 성령을 비피조자, 거룩한 영, 비시간적, 초시간적, 초공간적 존재, 인간의 체험적 대상으로서의 영, 역사와 인간 속에 변화를 가져오는 역동적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그 신성과 인성을 정리한 바 있다.

그리스도론적 성령론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이중출원, 즉 성부와 성자가 성령의 출처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히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나오시는 지혜를 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의 계획의 작정들을 시행하시는 능력을 바라보는 데에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Calvin, I. 13. 18).”²⁾ 이 표현에서 삼위 하나님이 질서와 경륜의 관점에서 존재하는 순서의 차이이지 우열이나 종속의 관계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최운배, 2015: 149).

성령은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끈, 영적인 접착제(spiritual bond)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비밀스러운 교통을 가능하게 하고(Calvin, III. 1. 4; 김재성, 2012: 445), 교회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하기 때문이다(Calvin, III. 1. 1; 김재성, 2014: 113). 후크마(Hoekema, 1967: 192)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통한 성화가 성령의 주된 역할임을 강조하였다. 이 연합이 중요한 이유는 이로써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며 그와의 교통을 통하여 거룩한 성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과의 연합과 교통에는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하는데 첫째 개인적 차원이고, 둘째 공동체적 차원이다. 개인적 차원은 개인적 연합과 교통을 통해 구원을 적용 받아 다양한 은사를 체험하고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체적 차원은 공동체를 통해 머리되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몸으로 살아가면서 지체된 성도의 은사를 발휘하는 차원이다(김재성, 2014: 118). 성령은 믿음과 구원을 주시고 내주하시면서 개인적 은사를 공급하시고 성화와 권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영이시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으로도 그 은사(재능)를 지체 사랑의 증거로 사용하게 하셔서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체들을 단단하게 연결시키신다(Calvin, III. 1. 3). 이러한 점에서 성령은 지체된 이웃 사랑을 위한 실제적인 능력을 제공하며, 세상과 구별시키는 성결과 성화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주가 되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이끈다.

사실 기존 연구들이 주목한 성령의 사역들은 대부분 특별 사역의 영역이라 할 수

2) 이 논문에 직접 인용된 칼빈 <기독교강요>의 모든 내용은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출판사에서 2009년 중판으로 번역된 책에서 가져온 것이다.

있다. 본 연구는 통전적 성령론을 지향한다. 성령 사역을 오직 성도의 중생과 구원 사역에만 제한시키는 것은 좁은 안목이다(김재성, 2014: 97). 성령 사역은 개인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사회 전반을 갱신하는 일에까지 미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성령과 협동하여 총합적인 자신의 뜻을 향해 이루어 가는데, 이는 우주적 일반섭리(자연질서), 보편적 섭리(특수한 자연현상과 인간의 모든 학문들), 특별섭리(성령을 통한 믿음과 구원의 적용) 모두를 통해서이다(김재성, 2014: 97). 성령은 이 모든 섭리에 주권적이다.

최윤배도 성령의 일반사역을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게 설정한 바 있다.

성령은 종교적인 영역 속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세계 우주 속에서 활동하고 이것들을 유지 또는 변화시키는 영이다. 성령은 개인과 교회의 구원만을 위해 활동하지는 않는다. 성령은 개인과 교회와 더불어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이다. 성령은 정의의 영이고 평화의 영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세상 속에 확장시키는 영이다. 성령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영이고, 세상 속에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는 영이다. 성령은 세상 속에서 인간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살리는 영이다. 성령은 모든 과학적 문화적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지만 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영이다. 따라서 성령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적 사상과 무신론적 철학과 학문에 저항하는 영이다. 성령은 종교적 영역에서만 활동하고 계시지 않는다. 성령의 활동은 제도적인 교회 속에 가두면 안 된다. 인간과 사회와 만유 속에서 모든 것의 생명을 유지시키면서 사랑과 긍휼과 정의로 그것들을 보호하고 억압과 파괴와 죽음의 세력에 저항하는 성령이다. 성령이 바로 이런 영이시기에 모든 인간과 사회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성령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최윤배, 2010: 95-96).

따라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 땅의 모든 영역을 섭리하시며 다스리신다. 인간의 지, 정, 의, 전(全)인격에 관여하시며, 기독교인의 교회에서뿐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모든 진리, 역사, 학문의 영역, 자연 현상 등에 개입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영이다(고후 4:4-6). 이러한 이해는 성령의 역할이 교회를 넘어서서 사회의 변혁을 가져오는 자리에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변혁의 힘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는 것이다.

칼빈 역시 성령의 사역이 모든 인간의 전(全)영역에 매우 포괄적으로 개입하여 유지

및 회복의 영으로 일하신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인류의 공통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지극히 탁월한 은사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막을 짓는 데 필요했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총명과 지식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이었다(출 3: 2-11; 출 35: 30-35). 그렇다면 인간 생활에서 가장 탁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말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불경건한 자들이 대체 하나님의 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는가? 하나님의 영이 오직 신자들 속에만 거한다는 진술(롬 8:9)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시는 거룩의 영(고전 3:16)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만물을 채우시고 움직이시고 또한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자신이 친히 창조의 법칙을 따라 각 종류에게 부여하신 그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유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물리학, 변증학, 수학 등의 학문들에서 불경건한 자들의 업적과 활동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마땅히 그런 도움을 받아들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학문들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선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나태함에 대하여 공의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Calvin, II. 2. 16).

물론 칼빈에게 불신자들의 지혜와 은사는 초등학교의 능력으로서 진리의 견고한 근원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은 불안정한 것으로 제한하고는 있으나,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각 사람의 소명에 따라 특별한 활동들을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사기에 이런 실례가 많이 나타난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에게 “여호와와 영이 임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요컨대 범상치 않은 사건들 속에는 언제나 무언가 그 사건을 추진시키는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의 뒤를 따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삼상 10:26).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을 것을 예언하면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하였다: “네게는 여호와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삼상 10:6).” 그리고 후에 다윗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듯이 이런 사실은 정치의 전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삼상 16:13).”(Calvin, II. 2. 17)

위와 같은 언급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특정인에게 베풀어지는 특별한 재능과 기술은 하나님의 손과 뜻에 의해 다스려지고, 이 재능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주어지거나 빼앗기기도 하는 것이다(욥 12:24; 32:8).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재능과 기술들은 일반, 자연 학문의 영역, 예

술적 재능, 관계의 기술, 성품 등 실로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맡기는 인재에게 임하게 하시는 여호와와 영은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특정한 뜻이나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깊고, 이 특정한 기름부음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에 의하여 그분의 뜻대로 주도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다. 고레스와 같은 불신자들의 지혜에도 성령이 관계하는 바, 하물며 우주적 변혁과 종말론적 회복에 관여하여(Ferguson, 2008: 275-290) 성도들의 삶과 학문 전반, 재능과 기술, 복음 전파, 사회 개혁 등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능력을 선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IV. 기독교 교육적 인재상의 덕목

기독교교육은 기독교와 교육의 합성어로 두 단어의 관계를 따라 그 의미를 규정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 둘째, 기독교가 교육하는 것, 셋째, 기독교 교육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박상진, 2008: 18-19).

첫째, 기독교를 교육하는 것은 기독교를 교육내용으로 하는 경우로 주로 교회 교육을 의미한다. 기독교 경전인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다. 둘째, 기독교가 교육한다는 것은 기독교 기관이나 단체, 기독교인 등이 하는 모든 유형의 교육을 의미한다.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이다. 셋째, 기독교 교육적인 교육이다. 모든 교육에 기독교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접근하는 교육을 총칭한다.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육 기관,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정신으로 행하는 교육 형태를 포괄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다만 성경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다양한 내용의 기독교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 부설의 기독교 학교, 홈스쿨,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기독교교육의 세 가지 유형들 간에 경계를 정확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모든 기독교교육 형태들이 성령의 특별 사역뿐 아니라 일반 사역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영은 교회 안에서 중생과 구원, 믿음, 성화의 과정에 연합의 원리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지, 정, 의 모든 영역의 역량과

여러 형태의 사회 개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교통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다차원적 경험들, 즉 교회 생활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달성되어야 할, 포괄적이고 완전하며 동시에 궁극적인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고용수 외, 2010: 39).

이 세 형태를 아우르는 기독교교육의 목표는 오늘날 장로교 기독교교육 목표 설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협동교육과정 계획안(Cooperation Curriculum Project. 이후 C. C. P)에서 설정한 교회교육을 위한 교육목표와,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의 실재를 연결하여 구체적인 교안을 제시한 오버만과 존슨(Overman and Johnson, 2007: 30)의 성경적 가르침을 위한 교육목표를 결합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³⁾

먼저 C. C. P. 가 제시한 목표 진술⁴⁾을 분석하면 크게 8가지 중심 주제를 끌어낼 수 있는데 (1) 하나님의 자기 계시, (2)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적인 사랑, (3) 믿음과 사랑 안에서의 우리의 응답, (4) 자기 인식과 인간의 삶의 정황, (5) 기독교공동체 안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일, (6)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 (7) 세상 안에서의 제자도, (8) 기독교적 소망 등이다.

오버만과 존슨(Overman & Johnson, 2007: 30)이 제시한 기독교교육의 목표는 기독교인들이 (1) 성경적 세계관의 차별성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 (2)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주변 세계의 모든 측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온전히 이해하는 것, (3) 왜 성경적 세계관이 다른 어떤 세계관보다 더 이치에 맞는지 아는 것이다. 이것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적 내용을 추가하면 (4)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목표에 이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복음의 빛 안에서 인간이 갖는 관계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할 때, C. C. P. 교육과정의 세 가지 차원이 발견된다. (1) 복음의 빛 안에서

3) 기독교 세계관의 개념 관련 연구물은 많지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목표, 목적, 교육과정 등으로 체계적으로 조직, 교육 현장에 접목하여 가르침의 실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다. Overman과 Johnson(2007)의 연구물은 위에서 제시한 기독교교육의 세 가지 유형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을 위한 교육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독교 세계관과의 통합 교육을 지향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연맹에서 번역하여 회원학교들의 교육 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4) 미국의 N.C.C.에 의해 주도된 교회교육을 위한 “협동교육과정 계획안(Cooperation Curriculum Project)”은 복음주의를 표방한 미국과 캐나다의 16개 개신교 교단이 연합으로 연구 개발한 교육과정 기본계획안으로 1964년 출판되었다.

이루어지는 실제의 “신적인” 차원, 즉 하나님 아래 있는 인간의 기독교적 경험, (2) “인간적” 차원, 즉 인간 상호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적 경험, (3) “자연적” 차원, 즉 세상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적 경험 등이다(고용수 외, 2010: 121-122). 이 내용범위를 교육목적과 상호 관련시켜서 다섯 가지 영역으로 확장시키면 “삶과 그것의 환경(life and its settings), 계시(revelation), 아들됨(sonship), 소명(vocation), 교회공동체(the church)”가 된다(고용수 외, 2010: 122-123). 그리고 오버만과 존슨은 교육과정 내용의 5 영역을 “하나님, 창조, 인류, 도덕체계, 목적”으로 정하였다(Overman and Johnson, 2007: 43-44). 이러한 교육과정의 내용들은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기독교교육 목적 중 영적 목적, 인격적 목적, 사회적 목적의 세 가지 성장의 차원(정정숙, 2000: 123)에 각각 배치될 수 있다.

기독교교육은 한 마디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전한 성도’를 기르는 교육이다(엡 4:12; 롬 12:2; 고후 10:4-5; 한춘기, 2005: 32). 따라서 성경적 제자도와 각 소명에 따른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탁월한 인재를 키우는 것을 중대한 하나의 목표로 상정해야 함이 옳다. 따라서 위에 제시한 기독교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 이로부터 본고가 논의할 기독교 교육적 인재상의 덕목들을 필자가 추출해 제시해 보면 표 1과 같다. 아래에서 추출한 인재상의 덕목은 기독교 교육적 인재상의 가치영역을 사도 바울과 모세의 삶으로부터 추출하여 ‘기독교인의 정체성,’ ‘리더십,’ ‘벤처정신,’ 세 부분으로 분할해 제시한 한미라, 김소연의 연구(2010)를 보다 확장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먼저 영적 목표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구속적 사랑,’ ‘세계관 분별’ 등이 해당하는데 이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서 ‘계시,’ ‘아들됨,’ ‘하나님,’ ‘창조,’ ‘목적’ 등이 연결된다. 이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이해하는 “믿음,” ‘창조’와 ‘삶의 목적’에서 추출된 “성화,” ‘계시’와 ‘세계관 이해’에 핵심인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관 이해와 분별’이 교육 목표로부터 인재 덕목으로 추출되었다.

인격적 목표로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의 우리의 응답,’ ‘자기 인식과 인간의 삶의 정황,’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 이해’ 등이 해당되며 이에 해당하는 교육내용은 ‘아들됨,’ ‘삶과 그것의 환경,’ ‘인류,’ ‘도덕체계’ 등이다. 이들 내용은 인간이 신앙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처해진 삶의 정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할지와 관계되므로 “자기 이해와 성품”의 덕목으로 추출되었다. 물론 이 항목에

도 환경에 대처하는 보다 활동적인 영역이 포함될 수 있지만 사회적 영역과 겹쳐지는 부분은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목표로는 ‘기독교공동체 안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일’,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 ‘세상 안에서의 제자도’, ‘기독교적 소망’, ‘기독교 세계관으로 복음 주체자로서 사는 삶’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교육내용과 연결해 보면 ‘삶과 그것의 환경’, ‘소명’, ‘교회공동체’, ‘도덕체계’, ‘목적’ 등과 관련된다.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인간관계와 환경을 하나님 나라와 소명으로 이끌어야 할 인재의 덕목은 “리더십과 협력”이며, ‘제자도’, ‘복음 주체자’, ‘소망’ 등의 목표는 “복음 전파”와 “사회 변혁”의 인재 덕목으로 나타난다. 인간 간 관계에서 나타내야 할 정적인 덕목은 인격적 목표의 덕목에서 ‘성품’ 항목 안에서 논의되게 하였으므로 사회적 덕목에서는 제외하였다.

Table 1 Virtues of Competent Persons According to Goals and Curricula of Christian Education

Objectives	Educational Goals	Curricula	Educational Virtues
Spiritu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d’s Self-Revelation, • Redemptive Love in Jesus Christ, • Understanding and Discernment of Worldview. 	Revelation, Sonship, God, Creation, Objective.	Faith and Sanctification, Wisdom and Discernment, Understanding and Discernment of Worldview.
Affe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ur Response in Faith and Love, • Self-Recognition and Situations of Human Life, • Understanding of Self-Identity in Christian Worldview. 	Sonship, Life and its Surroundings, Humanity, Moral System.	Self-Understanding and Character.
So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wth as God’s Kids Based on Christian Community, • Living by God’s Spirit in All the Relations, • Discipleship in World, • Christianomical Hope, • Living as Main Agents of Gospel with Christian Worldview. 	Life and its Surroundings, Calling, Church Community, Moral System, Objectives.	Leadership and Cooperation, Preaching of the Gospel and Social Reformation.

V. 교육 목표에 따른 인재 덕목과 성령의 사역

이번 장에서는 위에 제시한 기독교 교육의 목표에 따른 인재 덕목을 주로 성경에 소개된 성령 사역과 구체적으로 연결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1. 믿음과 성화

기독교 교육적 인재상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믿음과 성화라 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의 일차적 목적은 각 개인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 영생을 얻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이 덕목은 성령의 특별 사역의 하나로 생겨나며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로서 어떤 사람을 돕거나 변호하기 위해 부름 받은 사람을 뜻한다. 법정적인 의미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며 변호인이다(Ferguson, 2008: 40). 사도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인될 자격이 있었듯이(요 15:27), 성령은 처음부터 더욱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동반자였으며,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였기 때문이다(마 3:16-17; 마 3:34; 눅 4:1; 눅 4:18). 그리스도는 성령을 취하셨고(Bavinck, 2015: 387) 성령은 예수라는 존재와 더불어 “새겨졌다”(Dunn, 1975: 322). 성령과 예수는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다. 근본적으로 성령은 믿음의 영이다(고후 4:13). 따라서 성령을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며 그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것이다(롬 8:9-10).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적 인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였을 뿐 아니라 성령을 소유하게 되면서 믿음의 덕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성도의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인 치심의 보증이 성령이다(고후 1:21-22). 두 위격은 완벽한 친밀함을 전제로 한 경륜적 일체성을 가지며(고후 3:18; Ferguson, 2008: 62-63), 성령은 성도들에게 임할 아들됨(양자의 영)과 확신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롬 8:15-16). 그 영은 성도의 믿음을 강화하고(고전 12:9; 갈 5:5),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롬 8:11). 이런 점에서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치, 상호협력, 보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독교적 인재를 다른 덕목들을 갖추기 이전에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성령은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뿐 아니라 교통케 하며(고후 13:13) 성도를 성령의 전으로 만드셔서(고전 6:19) 옛 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은 소생시키는 일, 두 일을 양면적으로 성사시킨다(롬 6:3-5; Calvin, III, 8.1). “칼빈이 가졌던 구원의 서정이 있다면 믿음으로 역사하는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작용하는 믿음으로 주어지며, 칭의가 함께 포함된다(김재성, 2014: 133).” 이 연합은 일회적 믿음과 칭의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여정에 관여하여 기독교적 인재의 성화 과정을 실천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신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해되고 있는 칭의를 성령과의 연합이나 성령의 사역과 연결하고 있으며(갈 6:11; 롬 15:16; 살후 2:13), “믿음 가운데서의 인내 혹은 견인”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고 표현한다(엡 4:30; 엡 1:13-14; Hoekema, 2001: 54).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적 인재가 성화 과정에서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인 인내, 신실함, 충성, 절제 등의 속성 역시 성령의 주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열매가 있다(갈 5:16-26; 갈 6:8). 벌코프(L. Berkhof)는 이 같은 성령의 성화시키는 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성령과의-필자 주) 연합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따라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백성 안에서 행사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분에게 일어났던 일의 복제이자 재생산이다. 객관적인 의미에서만만 아니라 주관적인 의미에서도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로움으로 일으킴을 입는다. 그들은 다소간 그들의 주님의 경험을 공유한다(Berkhof, 2005: 451).

회심과 중생, 성화로 가는 과정은 성령의 사역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기독교교육이 추구하는 가장 첫 번째 인재의 덕목은 무엇보다 영생을 소유하고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자이며 이에 성령의 역할은 필수불가결하다. 이 덕목은 앞으로 제시할 지혜, 자기 이해, 세계관 분별, 복음 전파 등의 모든 교육 사역들의 기초가 되며 이 사역들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덕목으로서 인재 양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이다.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와 진리에 입각한 성경 연구를 통해 성취될 수 있다.

2. 지혜와 총명

성령은 연령을 초월하는 지혜의 영이시다(요 32:8-9; 고전 12:8). 제사장 옷을 짓는 일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확보하게 하시고(출 28:3),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고 정교한 일(성막 관련)을 고안, 제작, 교육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므로(출 35장), 성령은 모든 종류의 지혜의 근원이시며, 모든 지식과 기술에 내적 교사가 되신다. 사 11:2에 여호와의 신에 대한 6가지의 명칭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가 지상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야만 했는데(사 61:1; 마 3:16), 그 결과로 그리스도는 지혜(기술, 경험, 전문적 지식), 총명(지각, 통찰, 분별력), 모략(기획, 전략), 재능(수행, 추진력), 지식과 하나님 경외 등의 자질을 가지게 되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잠 1:7)”이므로 이 여섯 가지 명칭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서로가 연결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따라서 “성경이 모든 시대에 통하는 진리에 대한 궁극적 표준(Gaebelein, 1991; 64)”이며 세상의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다(Gaebelein, 1968/1991; 55).” 이러한 점에서 모든 진리를 성경의 보편적 원리들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인재상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 지혜 역시 성령의 특별 및 일반 사역 모두에 해당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요 14:17; 15:26; 16:13), 다만 진리를 깨달을 뿐 아니라 이러한 진리와 깨달음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이다(고전 2:12-14). 본고에서는 다만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달을 뿐 아니라 이를 삶 속에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 인재를 기독교 교육적 참된 인재로 전제하였다. 따라서 모든 진리의 궁극적 표준이신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알아가고 실천하는 인재는 반드시 지혜의 영을 소유해야 하며 그 영의 지도를 받아 삶 가운데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보혜사”라는 명칭이 상기시키는 바, 성령은 위로자, 교사, 보호자로서 성령의 계시와 진리의 교육 사역에 헌신되어 있다(요일 2:27). 따라서 성도는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안에 거해야 한다(갈 5:16-17).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있는데, 이 영을 통해서만 영적인 일의 분별력(고전 2:13)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한 충만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이 지혜는 세상을 살

아가는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도 힘을 발휘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요셉의 꿈 해석은 세상 정치 속에서도 지혜와 분별력(창 41:38)을, 사사들과 사울의 승리는 전쟁에서의 힘과 모략을(삿 6:34; 11:29; 13:25; 삼상 11:6-11), 다윗의 탁월한 시편 저작과 성전 건축 준비는 예술적 영감을(삼하 23:2; 대상 28:12) 각각 보여준다. 신약에서 찾으면 영의 구변을 갖춘 스테반(행 6:10)의 설교, 어부 출신 베드로의 언변의 역사(행 10:44) 등을 그 증거로 들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분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나아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하여, 기독교 교육적 인재들은 지혜의 영을 소유하고 자신의 특정 영역에서 이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이교도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분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한다면(사 45:1),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시대에는 좀 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Ferguson, 2008: 279)”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종말의 시대에, 기독교 교육적 인재는 진리의 영을 좇아 사고하고 세상 속에서 그 지혜를 발휘하는 자이다. 불신자에게 있는 재능과 지혜가 성령의 일반 사역의 하나라는 견해에 대한 논박이 있는 점은 차치하고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진리를 이해하고 지혜와 모략과 학문적 영감, 예술적 재능 등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이해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은 이러한 모든 종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진 인재들을 예배와 교육 사역을 통해 키워내야 한다.

3. 세계관 이해와 분별

기독교 세계관 이해와 타 세계관 분별은 모든 유형의 기독교교육에 가장 기초적인 요소다(Overman and Johnson, 2007). 이러한 이해를 갖춘 인재는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세상의 영(spirits)을 분별(test, discernment)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세계관을 분별한다는 것은 교육의 현장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삶의 모든 부분에 통합시키고 주변 문화의 다양한 양상을 성경적 세계관에 연결시키는 일을 의미한다(Overman and Johnson, 2007: 22). 구체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명령(창 1:28), 대

계명(요 15:12), 지상명령(행 1:8)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는 ‘제자도’를 의미한다(Hull, 2009: 165). 다시 말하여, 이 분별은 단순히 생각(ideas)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actions)으로의 진보를 포함하며, 교육을 실천하기 전에 이미 믿고 있어야 하는 진리에 대한 차별적 지향이다(Van Brummelen, 2006: 49).

성령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증거한다. 다시 말하여, 표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이 세계는 하나님 계획의 성취 역사임을 증거한다(Sire, 2009: 58). 대표적으로 다윗은 성령의 영감으로써(삼하 23:2)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시 24:1; 89:11) 이 세계를 운행하시고(시 83:18; 93:1) 이 세계 위에 높아지시며(시 46:10; 57:5) 이 세계를 심판하실 것을(시 9:8; 94:2) 선포했다. 다윗은 그가 누린 형통이 성령의 임재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사울의 전례를 예방하였다(시 51:11).

다니엘 역시 이 세상 학문과 영적 지혜 모두에 능통한 자였는데(단 1:17) 어린 시절부터 ‘뜻을 정하고’ 바벨론의 세계관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단 1:8). 그는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왕은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단 5:14)”고 그의 지혜를 인정하였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관이 이방의 세계관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남다른 명철과 분별력을 통해 드러내보였다. 단순히 생각만이 기독교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강대국의 혜택과 위협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세 번 예배하는 실천적 인재였다. 다니엘의 이러한 제자도가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역사까지 움직였다. 기독교 교육적 인재는 이처럼 영적 지혜와 세상 지혜 모두에 능통하면서도(단 1:17)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을 지지하고 견지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 역사를 써나가는 제자형 인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성령의 임재는 세상과 차별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비결이다(Harvey, 2015: 259). 고린도전서 2장은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와 성숙한 지혜를 말한다. 성령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구별되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전 2:10).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고전 2:15) 새로운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롬 12:1-2). 세계관 분별과 실천적 대응은 교육에 있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요, 핵심이다(Overman & Johnson, 2007: 20-21).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도우신다. 우리의 이해력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만큼 성장한다. 우리의 이해력이 자라는 만큼 세상을 보는 우리의 틀(세계관)도 변한다.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는 만큼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달라진다(Harvey, 2015: 259).

기독교 교육적 인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추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지혜를 배우고 분별하는 인간이다. 성령은 이 분별의 영역에 깊이 관여한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세상을 거둬낸 시각으로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를 따라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제자를 양성하고, 동시에 성령의 지혜로 세상의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

4. 자기 이해와 성품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양자됨의 정체성을 가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영생을 이해하는 것인데,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요 17:3). 바울도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하였다(빌 3:8-9). 그러나 이를 믿는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들을 선택하심에 따라 성령에 의해 그들 안에 생기는 것으로서 전적인 은혜이다(롬 11:6; 고전 15:10; Machen, 1996: 81).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2:12).”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양자됨의 정체를 이해할 수 없다. 메이첸(J. G. Machen)은 고린도전서 2장 14, 15절을 언급하면서 신령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혼적인(육에 속한-필자 주) 사람이란 인간의 영혼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다... 성경적 의미에서 영적인 사람이란 거둬낸 사람이며 자기 본성의 일부가 아니라 본성의 전부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변화된 사람이다(Machen, 1996: 164-165).

거듭남의 정체성은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본성적 변화를 의미하며 옛 사람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온다(롬 6:6).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실존적으로 실현되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분과의 연합의 결과다(갈 2:20; Ferguson, 1999: 169). 그러한 자는 죄로부터 자유하며(롬 6:2), 성품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롬 15:5).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부어지고 이를 경험하게 되면서(롬 5:5)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되는 것이다(벧후 1:4).

이것(사랑에 사로잡힘-필자 주) 역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성령의 일반 사역의 한 측면이다. 이러한 구속사적 구조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정서가 그리스도인의 의식을 가득 채워서 모든 신자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도록 인도한다. 이에 비추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벧전 1:8; 갈 5:22).(Ferguson, 1999: 206).

따라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의 우리의 응답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는 신적인 성품과 행동적 특성을 의미하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갈 5:22). 이처럼 성령 사역은 율법의 목표를 이룬다(롬 8:4; Ferguson, 1999: 192). 성령에 의해 율법은 내적인 법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렘 31:33-34).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거룩한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된다(요 15:5).

기독교교육에서 인제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반응하고 자기 자신을 기독교 세계관 위에 굳건히 세워 거듭난 자의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행하는 자이다.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walking)(갈 5:25):의 ‘행함’을 주석하면서 롱제네커(Longenecker, 1990: 264)는 이를 성령과 보조를 맞추라(행군)는 의미로 해석하기를 권면한다. 즉,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걷는 자에게 성령의 구령과 음성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적인 안목에서 참된 자기 이해와 성품을 갖춘 인제는 성령에 의해 완성되어간다.

자기 정체성 이해는 기독교를 차치하고서라도 교육학계의 화두이기도 하다. 발달학적으로 정체성 형성의 실패는 일생에 걸친 정체성 위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정체성 확립은 자아 발달에 핵심적인 과제이다(사미자, 2012: 34; 106: 143). 에릭슨도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미래의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자신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신앙이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청년 루터의 삶을 조명하며 이야기한 바 있다(Erickson, 1985: 71).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정체성 확립이 없이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김도일·장신근, 2009: 34). 참된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일에 성령이 깊이 관여한다는 것과, 이러한 지속적인 자기 이해에 바탕으로 두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모든 교육 장면에 성령의 임재를 우선적으로 간구해야 할 것이다.

5. 리더십과 협력

리더십은 교회 공동체와 일반 사회 공동체 모두에서 발휘되어야 할 기독교 교육적 인재 덕목이다. 오늘날 리더십은 다양한 정의를 가지지만 이들 정의에서 공통되게 도출된 속성은 목표지향성, 사람들 간의 영향력, 상호교류, 힘, 자발성, 영향력행사 과정 등이다(백기복, 2002: 220). 리더십은 지적 지능보다는 사회적 지능과 보다 관련되어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성공의 척도로까지 이해된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나 성공보다는 공동선과 정의를 향한 헌신과 이를 수행하는 능력과 보다 관련된다. 그리스도가 가장 적합한 모범이시다. 교회 공동체 안이라면 다양한 은사를 어떻게 협력적으로 활용하여 선을 세우며, 성도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 행정적 의사결정에 있어 어떤 절차를 거쳐 결론화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고, 일반 사회 공동체라면 사회 목표를 향한 추진력, 방법적 전략, 네트워킹 기술, 요구 수렴과 결정 과정의 합리성 등의 내용을 수반할 것이다.

성령은 리더를 세운다.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을 세우는 기름부음이나 안수 의식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 리더로 세우는 유일한 의식이였다(삼상 10:1; 시 132:10; 민 3:3; 27:18). 장로 리더십을 세울 때에도 유사한 장면이 나온다(민 11:17). 요셉에게 있던 ‘거룩한 영’(창 41:38)과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단 5:12; 6:3)은 모두 지혜와 총명의 다른 이름이지만 이방 나라의 환경 속에서도 리더십으로 세워지기에 충분한 자질을 의미하였다. 신약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사도로서의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다(행 2장). 따라서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야 할 책임이 있는 기독교

교교육의 관점에서, 리더십의 개념과 형태는 신구약의 시대와 현대가 다소 이질적인 모습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리더십 자체가 성령에 의해 주어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리더십은 많은 부수적인 자질을 필요로 한다. 모세는 영으로 충만하여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송사를 판단하는 능력’을 가졌고 ‘행정적인 일’을 하도록 ‘다른 리더십을 세우는 책임’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민 11:17; 27:22-23). 초대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가 세워졌는데(행 6:3), 이중 스테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행 6:5)’이라는 사실은 그를 지도자 되게 한 것이 배경이 아니라 지도자적 ‘품성’이었음을 알게 해준다(Harvey, 2015: 219). 바나바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 참된 구제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행 11:20) 사울과 같은 ‘인재를 채용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다(행 11:25-26). 기독교교육은 교회 내 행정과 말씀, 양육 등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키워내는 것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다양한 학문의 영역과 일의 영역, 즉, 정치, 외교, 교육 등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지도자적 임무를 지혜롭게 수행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인재를 키워내는 일을 목표로 한다. 어떠한 유형의 리더십이든 성령의 도우심이 그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협력과 하나됨은 리더십의 또 다른 표지이며 성령 충만의 증거이다.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영적으로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방식 중 하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 ‘협력적으로 성령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울 때 그리하였다(행 13:2). 이방인 선교를 두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도 성령이 개입하였다(행 15:28). 개인적으로 받은 성령의 여러 은사를 논의할 때도 그리스도 몸의 하나됨과 몸 전체의 유익이 강조되었다(고전 12-13장). “우리가 소유한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Calvin, III. 7. 5).” 성령의 열매가 사랑, 화평, 절제, 친절과 온유 등 대인적 자질을 주로 언급하고 있는 것도 그것을 보여준다(갈 5:22).

기독교 교육적 관점에서 인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성경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성도들 간의 협력적 관계를 나타내는 자이다. 성경에 제시된 성령의 사역은 이러한 참된 지도자의 자질과 밀접히 관련된다. 포스트모던 사회로 올수록 사회 기조가 자기중심주의로 변해가고 있으며 영성이나 리더

십도 지나치게 개인의 안녕에만 치중하고 있다(김도일·장신근, 2009: 35).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는 무관한 파편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협력과 하나됨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서로가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성령을 통해 도전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교육의 또 하나 과제인 것이다.

6. 복음 전파와 사회 변혁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복음 전파와 사회 변혁의 과제를 가지고 살아간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창조명령(창 1:28), 대계명(요 15:12), 지상명령(행 1:8)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육적 인재의 제자도는 진리에 대한 앎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의 진보를 의미한다(Van Brummelen, 2006: 49).

성령은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로 전해야 할지 가르치신다(고전 2:13; Harvey, 2015: 237). 따라서 ‘성경 이해’와 ‘복음 증거’는 모두 성령 사역이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증거와 이해의 영으로서 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 간의 복음 전파를 실제로 가능케 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이처럼 성령은 모든 것, 즉 바울의 전파, 회중의 회심, 그리고 하나님의 참 지혜로서 특히 메시지 이해에 핵심이시다(Fee, 1987: 105).” 따라서 진리를 전파하는 복음 주체자로 교육하는 기독교교육은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실제 전파의 현장에 우선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일을 잊지 않아야 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의 말씀 전파 ‘능력’을 암시하였는데(눅 24:49; 행 1:8), 성령의 뿌림(Sparkling) 사건과 비교할 때(요 20:22),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성령의 흡수(Saturation) 사건이라는 견해(Calvin, 1961: 205)는 성령의 충만함, 즉 부여하신 증인으로서의 능력의 중요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말세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으심은(골 2:28-9)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특정 선지자만 선택받았던 구약적 방식을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시킨다. 대표적으로 집사 스테반의 긴 증언은 유대사에 대한 지식과 언변, ‘담대함’을 보여준다(행 6-7장).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울(행 9:17)이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탁월한 증언을 하기 시작한 것(행 9:20), 성령의

능력을 입은 예수님의 말씀 선포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눅 4:14-22) 모두가 이를 증거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의 증표는 담대함(행 4:13; 29; 31; 빌 1:20)이다. 구약 성경에서 그러하였듯이 성령이 하나님의 종을 충만케 할 때 그분은 그의 인격으로 옷을 입으며 성령의 권위가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가운데 나타난다. 이런 담대함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곧 자유로운 선포이다(Ferguson, 1999: 273).

복음 전파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킨다. 복음 전파를 수행하는 제자를 교육해내 고자 하는 기독교 교육도 결국은 사회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을 삶의 여러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주체자로서의 삶은 사회를 변혁시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세계에 알려진 사회 변화 수단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교회가 행사해야 하는 유일한 주도력은 말씀과 성령의 주도력인데 그것은 바울 사도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고후 10:5)시키기 위해 사용한 그 무기다(Vanhoozer, 2007: 94).” 이방 왕 고레스에게도 기름을 부어 역사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셨다면(사 45:1) 내적 교사(inner teacher)인 성령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세상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전권적인 뜻을 펼치실 수 있다. 모세, 여호수아, 느헤미야, 학개, 에스라 모두가 이러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

기독교 교육적 인재를 복음 전파와 사회 개혁을 위해 쓰임 받는 자이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성령의 사역임을 인지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지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더 의지하는 일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요 4:24), 전심으로 구할 때(눅 11:13; 행 8:15), 복음을 전파할 때(눅 4:18-19; 행 13:52), 말씀을 읽을 때(요일 2:27), 그를 따라 행할 때(갈 5:25), 그를 소멸하지 않고 존중할 때(살전 5:19), 성령은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 어떤 유형과 내용의 교육을 시행하든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는 합당한 환경과 순종을 드려 그분의 능력이 인간적 한계에 구속되지 않도록 한다면 기대 이상의 교육적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본고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기독교 교육적 인재 덕목과 연결하여 논의하였다. 기독교 교육적 인재 덕목은 오늘날 교회 교육과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형태에서 비롯된 교육 목표와 내용에 근거를 두고, ‘믿음과 성화, 지혜와 총명, 세계관 이해와 분별, 자기 이해와 성품, 리더십과 협력, 복음 전파와 사회 변혁’라는 6가지 덕목으로 추출하여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성령의 사역은 구원의 서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 사역이 아니라 전인격적이며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과 폭넓게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동안 기독교교육에서 키워내고자 했던 인재의 주요 자질들은 보다 근원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 현장에 성령의 사역과 임재를 구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가르치는 일은 교육의 탁월한 효과와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는 근원적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령 사역에 대한 사변적이고 교육학적 접근이 많았던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본 연구는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해 성령과 함께 하는 교육이 키워내야 할 인재 덕목을 기독교교육의 목표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추출하고 이를 성령의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성경의 인물이나 풍부한 말씀 고찰을 통해 실증적이고 원리적으로 제안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즉, 성령 중심의 교육과 기독교교육 목표 간의 논리적 고리를 제시했으며, 교육학적 접근, 신학적 접근 모두를 포괄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기독교교육을 교회교육과 기독교 학교교육으로 이분화 하여 논의하면서도 이 두 가지를 한 가지 비전으로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 하는 한계에 아쉬움을 던졌던 기존 연구들에 응답하여 본 연구는 그 통합적 논의에 대한 하나의 예를 남겼다. 다만 본 논문의 성격상 이러한 인재 덕목 교육을 구체화할 성령 중심적 기독교교육의 실천적 방법론은 포괄하지 못 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교육에 있어 성령의 사역에 대한 무관심과 오류적 사고 모두 위험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성령 사역에 대한 체계가 일목요연하게 조직화되기 어렵다는 점은 다른 신론과 마찬가지로 그 주권적 사역이 그만큼 방대하고 인간과 공유되지 않는 신적인 속성에 기인한다는 점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접근일 것이다.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성령 사역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는 이러한 무관심과 오류적 사고를 예방

하는 데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할 수 있다. 이를 명시화 하면서,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가 행사하는 대부분의 교육 활동에, 의식하든 못 하든 교회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역하신 풍성한 결과를 취하면서도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영적 태만이 만연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은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사역이요, 서로의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하여 온전하고 균형 잡힌 반응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고용수 · 김도일 · 박상진 · 사미자 · 양금희 · 임창복 · 장신근 (2010).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장신대 기독교교육연구원.
- [Go, Y. S., Kim, D. I., Park, S. J., Sa, M. J., Yang, G. H., Lim, C. B., & Jang, S. K. (2010).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Christian Education Institute.]
- 김대순 (2003). *교육에 있어 성령의 사역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Kim, T. S. (2003). *A Study on Employment of the Holy Spirit in Education*. Master Dissertation. Chongshin Univ.]
- 김도일 · 장신근 (2009). *기독교 영성교육*. 서울: 동연.
- [Kim, D. I. & Jang, S. G. (2009). *Education for Christian Spirituality*. Seoul: DongYeon.]
- 김영선 (2015). 레오나르도 보프의 관계적 삼위일체론. 웨슬리신학연구소 (편저). *관계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pp. 281-316). 서울: 아바서원.
- [Kim, Y. S. (2015). The Relational Trinitarianism of Reonardo Boff. In Wesley theology institute (Ed.), *Triune God in Relation* (pp. 281-316). Seoul: Abba Vow.]
- 김재성 (2012). *개혁주의 성령론*. 서울: CLC.
- [Kim, J. S. (2012). *Reformism Pneumatology*. Seoul: CLC.]
- 김재성 (2014). *존 칼빈: 성령의 신학자*. 서울: CLC.
- [Kim, J. S. (2014). *John Calvin: The Divine with the Holy Spirit*. Seoul: CLC.]
- 박상진 (2008). *교회교육 현장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Park, S. J. (2008). *Christian Education Field Theory*. Seoul: The Presbyterian University Press.]
- 백기복 (2002). *조직행동연구*. 서울: 법문사.
- [Baek, G. B. (2002). *Organizational Behavior Research*. Seoul: Bobmunsa.]
- 사미자 (2012). *인간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Sa, M. J. (2012). *Human Development and Christian Education*. Seoul: Korean Presbyterian Press.]
- 서철원 (2003). *성령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Seo, C. W. (2003). *Pneumatology, How Will We Educate?*. Seoul: GAPCK.]
- 소태영 (2015). 성령이 베푸는 신비의 향연에 참여하는 교육.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8, 301-328.

- [So, T. Y. (2015). Christian Education as Participating in the Banquet that the Holy Spirit Holds.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98, 301-328.]
- 정원래 (2015). 토마스 아퀴나스와 관계적 삼위일체론. 웨슬리신학연구소 (편저). **관계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pp. 99-129). 서울: 아바서원.
- [Jung, W. L. (2015). Thomas Aquinas and Relational Trinitarianism. In Wesley theology institute (Ed.), *Triune God in Relation* (pp. 99-129). Seoul: Abba Vow.]
- 정정숙 (2000). **기독교교육학**. 서울: 배다니.
- [Jung, J. S. (2000).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Seoul: Bethany]
- 지성일 (1991). **교회의 교육목회와 성령과의 관계 소고**.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
- [Jee. S. I. (1991). *A Research on Relationship of Educational Ministry of Church and the Holy Spirit*. Master Dissertation. Presbyterian Theological University.]
- 최윤배 (2010). **성령론 입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Choi, Y. B. (2010). *Introduction to Pneumatology*. Seoul: The Presbyterian University Press.]
- 한미라·김소연 (2010).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미래인재 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 **기독교교육정보**, 27, 29-62.
- [Han, M. R. & Kim, S. Y. (2010).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Image of the Future Core Leader in the Christian Education Perspective.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7, 29-62]
- 한춘기 (2005). **기독교 교육신학**.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 [Han, C. G. (2005). *Theology of Christian Education*. Seoul: KSCRE.]
- 황승룡 (1999). **성령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Hwang, S. R. (1999). *Pneumatology*. Seoul: PCKBOOK.]
- Bavinck, H. (1992) *The Doctrine of God*. (3rd. edition). Trans. Lee, S. G. Seoul: CLC. (Original work published 1978).
- Bavinck, H. (2015). *Our Reasonable Faith*. Trans. Kim, Y. K. Seoul: CLC. (Original work published 1956)
- Berkoff, L. (2005). *Systematic Theology*. Trans. Kwon, S. K. & Lee, S. W. Seoul: Christian Digest. (Original work published 1941)
- Boff, L. (2011). *Holy Trinity: Perfect Community*. Trans. Kim Y. S. & Kim, O. J. Seoul: Christina Herald.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Bondy, J. (2011). Role of the Holy Spirit in Christian School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19. 55-71.
- Calvin, J. (2009).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nd. edition). Trans. Won, K. Y. Seoul: Christian Digest. (Original work published 1559)
- Calvin, J. (1991).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Vol 2. Trans. D. A. Carson. Grand Rapids: Eerdmans. (Original work published 1961)
- C. C. P. (1965). *The Work of the Cooperative Curriculum Project, The Church's Educational Ministry: A Curriculum Plan*. St. Louis: The Bethany Press.
- Dunn, J. D. G. (1975). *Jesus and the Spirit*. London: SCM Press.
- Erickson, E. (1985).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W. W. Norton.
- Farley, E. (1965). Does Christian Education Need the Holy Spirit? *Religious Education* 60. 427-436.
- Fee, G. D. (1987). *The First Epistle of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 Ferguson, S. B. (1999). *The Holy Spirit*. (8th edition). Trans. Kim, J. S. Seoul: IVP. (Original work published 1996)
- Gaebelein, F. E. (1991). *The Pattern of God's Truth: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Trans. Lee, C. K. Seoul: CLC. (Original work published 1968)
- Goleman, D., Boyatzis, R., & McKee, A. (2002). *The Primal Leadership: Realizing the Power of Emotional Intelligence*. NY: Brockman Inc.
- Harvey, J. D. (2015). *Anointed with the Spirit and Power*. Trans. Whang, E. M. Seoul: CLC. (Original work published 2008)
- Hoekema, A. A. (1967). *What about Tongue-speaking?* Grand Rapids: Eerdmans.
- Hoekema, A. A. (2001). *Saved by Grace*. Trans. Ryou, H. J. Seoul: CLC. (Original work published 1989)
- Hull, J. E. (2009). "Education for Discipleship: A Curriculum Orientation for Christian Educators." *JE&CB* 13(2). 155-168.
- Jordan, M. D. (2016). Democratic Moral Education and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Journal of Religious Ethics* 44(2). 246-259.
- Kaufmann, S. (2005). The Role of the Holy Spirit in the Educational Thought and Practice of Charlotte Mason. *Journal of Education & Christian Belief* 9(2). 105-119.
- Longenecker, R. N. (1990). *Galatians*. Dallas: Word.

- Machen, J. G. (1996). *The Christian View of Man*. (8th edition). Trans. Chae. K. H. Seoul: Nachimpan Ministries. (Original work published 1984)
- Miller, R. C. (1962). The Holy Spirit and Christian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57(3), 178-229.
- Omenyo, C. N. The Spirit-Filled Goes to School: Theological Education in African Pentecostalism. *Ogbomoso Journal of Theology*, 8(2), 41-57.
- Overman, C. & John, D. (2003). *Making the Connection*. Trans. Kim, S. H. Seoul: Jeyoung Communications Publishing House.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 Rogers, F. (1994). Dancing with Grace: Toward a Spirit-Centered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89(3), 377-395.
- Sire, J. W. (2009). *The Universe Next Door*. Trans. Kim, H. S. Seoul: IVP.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Smart, J. D. The Holy Spirit - Superfluous to Education or Essential? *Religious Education*, 61(3), 223-229.
- Van Brummelen, H. (2006).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Trans. Lee, B. H. Seoul: IVP. (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Vanhoozer, K. J., Anderson, C. A., & Sleasman, M. J. (2007). *Everyday Theology*. In K. J. Vanhoozer (Ed.). Trans. Yun, S. I. Seoul: Revival and Reformation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논문초록

기독교 교육적 인재 덕목과 성령의 사역

이 란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 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교육의 목표로부터 기독교 교육적 인재 덕목을 추출하고 이를 성령의 사역과 연결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먼저 복음주의 개신교 연합 협동교육과정 계획안(Cooperation Curriculum Project)에 따른 교육목표와 Overman & Johnson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목표로부터 기독교 교육적 인재상을 추출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추출된 여섯 가지 덕목은 ‘믿음과 성화, 지혜와 총명, 세계관 이해와 분별, 자기 이해와 성품, 리더십과 협력, 복음 전파와 사회 변혁’이었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 인재 덕목을 성령 사역에 대한 성경적 예를 통해 논의함으로써 성령 사역이 가지는 기독교 교육적 인재 양성에 미치는 기독교 교육적 함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고는 기독교교육에서 성령은 보다 근원적이며 궁극적인 내적 교사일 뿐 아니라, 그 사역이 개인과 세상 모두에 미치는 삼위 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회복 역사와 정확히 일치함을 적시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적 인재 형성에 있어 성령 사역의 중요성 인식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교육, 인재 덕목, 성령의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

